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IC
뱅크오브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잉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3 제 6780호

Tuesday, October 17, 2023 A

“대미 투자 결실 없으면 윤 정부 총선 패배?” 호건 전 주지사 기고문 논란

(MD) (뉴스위크)

래리 호건(공화·사진 원안)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시사잡지 뉴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정치적 위협을 감수한 채 오래된 한일 갈등을 접고 미국의 동맹관계에 협력해 왔으며 한국기업이 수십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려워해 왔음에도 한국인들이 윤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패배하고 앞으로 더이상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미국 산업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 경제협력력을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경제 협력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이 얻은 적성국가와의 공급망을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축법의 국내기업 보호조치를 취해 한국인들의 반미정서를 부추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조선산업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 해군력이 중국에 뒤질 경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비교우위 잇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아무런 결실 없이 이뤄지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 내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미국 청년세대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가 한미 경제협력



의 결실이 없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패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이유는 취임 이후 줄곧 무능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행태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탓이지, 주고받기 식의 한미외교 결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옥재 기자

▶ 2면 '기고문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민심 더 싸늘해지는데... 감동 없는 김기현 2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예고된 대로 집권여당과 용산에 대한 민심이 일주일도 안 돼 싸늘해졌다. 특히 수도권 민심 이탈이 심각했다.

16일 공개된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하는 자동응답(ARS)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2%(더불어민주당 50.7%)로 떨어져 민주당과 격차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17.15%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이만희(재선·경북 영천-청도) 신임 사무총장 등 ‘김기현 2기 체제’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는 ‘변화의 메시지’는커녕 ‘중랑감’ ‘수도권 대표성’ 3박자 모두 미흡한 감동 없는 인사판 평가가 나왔다.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겠다”던 김 대표 본인의 약속과는

거꾸로 간 셈이다. 이에 여론 안팎에선 “내년 4·10 총선은 공천 등을 용산이 주도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란 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신임 사무총장 외에 김예지(조선·비례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유의동(3선·경기 평택) 정책위의장, 김성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여의도연구원장, 박정하(조선·강원 원주갑) 수석대변인, 윤희석(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선임대변인, 함경우(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조직부총장 등 7명의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추후 인선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 등 8명의 임명직 당직자가 일괄 사퇴한 데 따른 후속 당직 인선을 서두른 것이다. 정효식 정치에디터, 김기정·김준영 기자



▶ 2면 '김기현 2기'로 계속

네타나후, 이란·헤즈볼라 “개입 말라” 경고

베냐민 네타나후(사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이란과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 하마스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이날 알자지라 방송 등이 생중계한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북부에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하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압박하자 레바논 남부



와 접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미사일, 로켓 포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매우 밀접하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력 행동이 강화되면서 이날 오전 레바논 국경과 2km 이내의 북부 28개 마을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

피란 대상 마을 중 하나인 이스라엘

북부 슈톨라엔 전날 헤즈볼라가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져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자체 매체를 통해 국경을 따라 있는 이스라엘 군 초소들의 감시카메라를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헤즈볼라는 이는 경고일 뿐 참전을 결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덧붙였다.

네타나후 총리는 또 하마스를 나치에 비유하며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세계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마스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단체”라며 “그들에게 납치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반드시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덧붙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크네세트 회의 중 예루살렘에 공습경보가 울리며 회의가 중단되고 네타나후 총리가 방호 시설로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기습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격퇴를 목표로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겨냥한 대규모 지상

군 투입을 앞두고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상자가 계속 늘면서 이날까지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2천808명이 숨지고 1만859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보건부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가 64%에 달하고, 37명의 의료 인력도 포함됐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254명이 추가로 희생됐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군인 291명을 포함해 1천400명이 숨졌고 일부 외국인을 포함해 199명이 가자 지구에 인질로 납치됐다고 집계했다.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폐품
순금 예기 물품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er | bankofhope.com

Hope keeps it simple

Bank of Hope SBA Express Loan

- 48시간내 신속한 Pre-qualification*
- 최장 10년의 용자 기간
- 사업체 구입시, 최대 \$350,000까지 용자 가능
- 운영 자본 필요시 \$250,000까지 용자 가능

자격요건**:
 • 최소 24개월의 사업 운영기간
 • 신용 기록 충족
 • 7년간 파산기록이 없는 경우
 • 최소 용자금액: \$30,000

온라인 용자 신청: apply.bankofhope.com/ez
 상담 전화: 1-888-995-6095
 이메일: EZLOAN@bankofhope.com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Annandale Branch: 7410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 Tel: 703 354 4310
 Centreville Branch: 1389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 Tel: 571 321 6272

* "48시간내 Pre-qualification" 은 용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수령후 시작됩니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 크레딧 승인결과 또는 기타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기현 2기 수도권 당직자 늘었지만 당 '빅3'는 모두 영남

▶ 1면 '김기현 2기'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총선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 인선이 당초 김 대표와 가까운 박대출(3선·경남 진주갑) 의원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뀐 과정이 노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조수진(조선·비례대표) 최고위원이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포함된 '주요 당직자 임명안'엔 사무총장에 박대출 의원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인선안을 두고 김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며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한 대목도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실제 전날 밤 이 같은 김 대표의 인선안을 전달받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한 복수의 최고위원이 "정책위원장을 사퇴한 박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경우 '둘러막기'가 된다"고 반발하면서 용산과 소통이 원활한 이만희 카드로 바뀌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울산 남울)·윤 원내대표(대구 달서울)·이만희 총장까지 영남 출신이 당 3역을 맡게 됐다.

이신임 사무총장은 윤 원내대표(1기)의 경찰대 한 해 후배(2기)로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뒤 2016년 총선으로 입문해 초선 때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냈고, 친윤계 재선그룹에 속하지만 계파색은 비교적 엷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이 경찰 출신이어서 "경찰·경찰당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윤 정부 들어 김석기(서울경찰청장 출신) 의원·이철규(경기경찰청장 출신) 의원·이신임 총장까지 3연속 경찰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해서다.

반면에 당정 정책 조율을 이끌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및 당평 차원 인선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직능본부장을 맡아 '친유승민계'로 분류된 적이 있는 비윤계 인사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기용된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다. 신임 당직 전체적으로 '김기현 1기'와 비교하면 수도권 인사가 많아졌고 평균연령은 낮아졌다. 1기에서 수도권은 배현진(서울 송파울) 전 조직부총장이 유일했는데, 2기에선 8명 중 절반(유의동·김성원·윤희석·함경우)이 수도권 인사로 채워졌다. 1970년대생 4명(유의동·김성원·윤희석·함경우)과 1980년대생 1명(김예지)이 기용되면서 평균연령도 59세에서 52세로 낮아졌다.

문제는 새로운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김기현 2기 인선이 4·10 총선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 이반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당정 관계도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친화형 국정 운영 ▶당 혁신기구 출범 ▶총선 준비기구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등 6대 실천 과제로 발표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김 대표 2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숫자로 구색만 맞추는 중량감이나 쇠신의 메시지 등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위기 인식 결여, 인물 부족, 용산 눈치 보기 등 문제점만 드러난 인선"이라고 총평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한국갤럽

과 리얼미터의 12~13일 여론조사상 민심 이반 속도에 비해 "친윤계 둘러막기 인선으로 역부족"이란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한데도 여권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16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정부 들어 최저치인 32%로 내려앉은 데는 서울(10.2%포인트), 인천·경기(4.7%포인트)에서 정당 지지도 하락이 원인이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같은 조사에서 서울(6.1%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도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38.1%로 국민의힘(33.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두 달 전인 8월 조사 결과 국민의힘 35.5%, 민주당 34%에서 역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도 8월 대비 5.5%포인트 떨어진 32.3%로 나타났다. (중앙선 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일개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슈케이 연구소장은 "현재의 여론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없는 것 아닌 가란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민심이란 전광판을 매일,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여권에선 "용산의 시계는 여의도보다 느리게 간다"며 "연말께나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 인선 등으로 무게감 있는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란 관측이 나왔다. 정효석 정치에디터, 김기정·김준영 기자

▶ 1면 '기교문 논란'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과 대미 투자는 일종의 안보 기회비용으로 판단해 왔으며 좌파정권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그 비용이 더 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야권과 일부 한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긴 했으나 이로 인해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나 정치적 득실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뒤바꿔 놓을 정도의 악재라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3,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터일!
--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1월 24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왼쪽)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야당의 의혹 공세가 이어지자 지명 5일 만에 물러났다. (중앙포토)

“가족 공격당하자 사퇴한 총리 후보, 가슴 아팠다”

박근혜 회고록 인선 비화
첫 총리 후보 김용준 자진 사퇴
“이런 것도 검증에 문제 된다고요?”
후보자 낙점 인사들 잇단 손사래

“청문회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해서...” “이런 것도 문제라고요? 그럼 사양하겠습니까.”
대선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인선에 애먹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했던 인사들이 하나같이 손사래친 것. 청문회에서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나마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던 인사들도 내부 검증이 시작되자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난항이 이어지던 가운데 2013년 1월 24일 박 전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전격 지명했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김 위원장은 최연소 사법시험 수석합격, 최연소 판사 임용, 헌법재판소장 역임 등 입지적적인 경력과 함께 인망이 높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는 언론과 야당

의 검증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사퇴를 만류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는 “가족들에게 화살이 겨눠지면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발표 다섯 만인 1월 29일 물러났다.

17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잔혹사’를 다뤘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서곡이었다. 어렵사리 초대 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2014년 세월호 사태로 1년 만에 내려왔다.

이후 총리 후보 지명자들도 잔혹사가 이어졌다. 2003년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해 ‘차떼기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의 연이은 낙마를 바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어떤 심경이었을까.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되짚어 봤다”며 고위 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대해 반추했다. 또 국회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유성운 기자**



워싱턴 날씨 (°F)

18일(수) 66~48	21일(토) 62~51
19일(목) 72~55	22일(일) 62~43
20일(금) 70~54	23일(월) 59~40

10월 17일(화) 65~4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완벽한 전문인 구성 및 워싱턴 지역 최고 공격 마케팅 전략 부동산 팀

부동산 명품 브랜드, REALTYONEGROUP 슈나이더팀 부동산을 찾으십시오!

줄리엣 리 703.303.2737	이수경 410.979.7077	강상구 571.314.6222	앤젤라 윤 571.375.9567	서동진 571.499.9843
박주연 703.965.6844	엠마 리 571.634.1778	정필도 410.925.2040	최재영 571.882.4280	장성진 410.858.1688
				제니 하 571.459.9237

워싱턴 지역 주택, 상가, 사업체 매매 및 구입 상담 환영

압도적인 규모, 선도적인 마케팅
혁신적인 교육, 보편적인 원칙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사업체
주채권 랭킹 서비스
투자 컨설팅

대표 승경호
703.928.5990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

'미국 속 한국' 무료 역사탐방 가요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 등
21일 한인 커뮤니티센터 출발

깊어가는 가을, '미국 속 한국'을 찾아 나서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외소재문화재단(미국사무소(소장 강임산)와 한인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 서재필기념재단(회장 최정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역사탐방은 미국 속 한국의 역사 유산을 찾는다는 취지로 기획돼 오는 21일(토) 필라델피아를 첫 탐방지로 정해 역사탐방 시범 운영에 나선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한인 이주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로 구한말 서재필과 이승만의 주도로 1919년 '제1차 한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서재필의 선전 홍보 활동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미 전역에 확산시킨 역사적인 도시이다.

이번 탐방은 서재필기념관을 비롯해 리틀극장, 독립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강임산 소장은 "문화재청 근무 당시 지역 간 문화역사탐방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미국 속 한국' 역사탐방을 기획하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소재 서재필 기념관

며 "교민들이 미국 안 국외사적지와 공사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봄, 가을 연 2회 정도 일정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본격화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한인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역사탐방에는 대형 버스 차량과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21일(토) 오전9시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출발한다. 참가를 위해서는 접수가 필요하다.

문의: 202-577-3284(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김유숙 사무국장) 김윤미 기자

한인 경제생활 현주소를 묻습니다

최대 한인은행뱅크 오브 호프 협찬



미주중앙일보 창간 49주년, 워싱턴 중앙일보 창간 22주년을 맞아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 '전국 한인 경제생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한인들의 경제생활 현주소 파악을 위해 재정 상황, 주거 및 투자 형태, 노후대책, 은행 이용 실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국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인 경제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의미도 크다. 또

한 앤데미크와 고물가 등이 한인 경제에 끼친 영향도 알아볼 예정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주소 기재를 없애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설문조사는 중앙일보 웹사이트인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10월 25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설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2만 달러의 상품을 제공한다.



주미대사관,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 발생 관련 공지

주미한국대사관(조현동 대사)이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 발생 관련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13일 발표한 공지는 워싱턴 지역 경찰이 전직 하마스 지도자가 언급한 13일 분노의 날 선동과 관련 안전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며 예배 장소 등에 많은 병력을 투입 예정으로 일부 학교는 문을 닫는다고 알렸다. 또한 최근 무력 충돌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공공 안전 우려 회보를 각 주와 지역 별 법 집행 당국에 보내 주의를 기울이

며 경찰 순찰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동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종교시설 인근 및 시위대 군집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중 밀집지역 방문이나 늦은 시간 외출의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 위치 및 연락처 확보, 지인과의 동행 등 가능한 많은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202-939-5653)으로 연락 할 수 있다.

불법 성매매 업소 한인 등 4인에 중형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온 한인을 포함한 업주들에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무부는 13일 가주와 애리조나에서 불법 안마시술소 5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피터 그리핀(79)과 공동 피고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경찰국에서 은퇴한 전직 경찰관으로 알려진 그리핀은 이날 징역 3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숙 에르난데스(59), 유진 오트(46), 유흥탄(57)도 각각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샌디에이고와 애리조나 탬피 지역에서 '지니 오리엔탈 스파', '펠리시타 스파', '블루 그린 스파', '메이플 스파', '마사지 W 스파' 등의 이름으로 등록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홍보, 알선해 불법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취업이 제한됐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과 중국 출신 이민자들을 채용했으며,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직원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이들은 해당 직원에게 "고객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양심은 중국에 내버려둬라"라며 억지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4명은 다수의 상가 공간을 가게 명의로 리스 계약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으며, 거주 공간도 빌려 성매매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크레딧 카드 결제까지 갖추고 영업에 이용해 성매매 대가를 갚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리핀은 경찰관이었던 경험을 이용해 적발을 피하고 증거를 감췄으며, 과거 관계 등을 이용해 지역 경찰에는 그의 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였다. 우훈식 기자

코스트코 기프트카드 충전 금액 이하로 판매



코스트코 회원은 웹사이트에서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업체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코스트코 웹사이트(Costco.com)에서 여러 소매업체, 항공사, 레스토랑의 기프트카드를 충전된 금액보다 10~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미노 피자 100달러 기프트카드를 79.99달러에 살 수 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500달러 기프트카드는 449.99달러다. 이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파파존스, AMC 영화관, 크리스피크림, 서브웨이 등의 기프트카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5% 캐시백 카드로 지불하면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뉴스는 최근 보도했다. 게다가 일부 제품에 한해 20달러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일부 기프트카드는 회원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다. 정하은 기자



워싱턴평안도민회 추계야유회 워싱턴평안도민회(회장 이윤보)가 지난 15일, 센터빌 소재 불런파크에서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야유회를 마쳤다. 이날 야유회는 신임 회장 취임 후 갖는 첫 행사로 진행돼 임원 및 이사회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앞으로의 회기동안 차세대 탈북민 장학기금 등을 꾸준히 지원해 후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앞서 장학금을 후원받은 콜롬비아대 대학원생 이서현 양의 부모가 참석해 도민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윤미 기자

OMNI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미!
보령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뉴퓌트뉴스 & 리치몬드 케어피플 간병사 서비스 확대
케어피플 사랑방 오픈

케어피플 홈헬스

한국인 간병사 서비스 (VA & MD) 간병사 교육

715 Kanawah Run Yorktown VA 23693

**간병사 서비스 신청과 간병 교육 및 일자리를
당신의 셀폰 인터넷 CarePeople.net 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11:10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간병사 교육 스케줄

11/06 ~ 11/10 월-금 (매달 교육 수시 접수 중)
CarePeople.net으로 신청 또는 전화 주세요.
(571-297-4747)

VA& MD - 한인 간병사 서비스 신청 및 간병사 교육 및 취업 문의 가능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14631 센터빌 #401

애너데일 사랑방 4306 #104

애너데일 베트남 4312 #D 2층

게이더스버그 901 #150

센터빌 본사
571-297-4747
14631 Lee Highway, Suite #401
Centreville, VA 20121

애너데일 사랑방
571-297-4747
4306 Evergreen Lane, Unit #104
Annandale, VA 22003

애너데일 베트남 사무실
703-506-333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메릴랜드 사무실
301-966-700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월-금(M-F) 9am~5pm
24hrs on call
571-297-4747

해외 첫 개최 한인비즈니스대회 성료

사상 첫 해외 개최로 세계 한인상공인들의 관심 속에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한상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 웨스틴 애너하임 리조트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재외동포청, 중소기업중앙회, 여러 지자체,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미국 각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참가기업, 미 정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마감을 축하했다.

폐회사를 통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밝힌 이번 대회 결산 잠정 집계 따르면 총참가기업인 수는 7825명으로 예년보다 3.5배가 증가

했으며 부스 수도 과거 130여개에서 600여개가 넘게 설치돼 400%에 육박하는 신장률을 기록했다.

기업 및 일대일 상담 건수 역시 1만1000건을 넘어섰으며 상담 거래 총액은 5억90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폐회사를 통해 이 청장은 “이번 대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원팀 정신이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동포청은 미주총연과 함께 이번에 상담한 모든 중소기업인이 끝까지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14일 폐회식에서 이기철(오른쪽) 재외동포청장이 이번 대회 각종 통계를 발표하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MS, 블리자드 687억불에 인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마지막 허들을 넘고 인수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MS는 13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수를 발표한 지 21개월 만이다.

MS가 당초 밝힌 인수 금액은 687억 달러로, 이번 거래는 MS의 4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또 2016년 델(Dell)이 데이터 스토

리지 업체인 EMC를 인수할 때 지출한 670억 달러를 넘는 정보통신(IT) 산업 역사상 최고액이다.

이날 앞서 영국 반독점 규제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이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CMA는 당초 경쟁 제한 우려로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부정적이었지만, MS가 15년간 블리자드 게임 판권을 프랑스 게임회사 유비소프트 매각하겠다는 등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인수 승인으로 돌아섰다.

한인 테니스 스타 페굴라, 한국서 첫 우승

제시카 페굴라(세계랭킹 4위·미국)가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페굴라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위안웨이(128위)를 1시간23분 만에 2-0(6-2, 6-3)으로 물리쳤다. 페굴라는 WTA 투어 통산 4번째 단식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만4228달러.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페굴라에게 이번 대회 우승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의 어머니 김(54)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5세 때이던 1974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대학생 시절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김은 미국의 기업가 테리(72)를 만나 1993년 결혼했다. 이후 김도 사업가로 성공했다. 이런 이유로 페굴라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2019년 코리아오픈 당시 자신을 “하프 코리아



15일 열린 2023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단식 우승을 차지한 제시카 페굴라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Half-Korean)”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페굴라는 세계 60위였고 단식 1회전에서 탈락했다. 페굴라는 이번 대회 내내 한국 팬들

의 응원을 받았다. 페굴라는 우승 후 “한국말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래도 저는 코리안 바비큐와 김치를 좋아한다. 이곳에서 우승해 특별한 기분이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7000여명의 관중은 갈채를 보냈다.

페굴라의 아버지 테리와 어머니 김은 미국에서 천연가스·부동산 사업을 하는 억만장자 기업가다. 경제지 포브스는 페굴라 부부의 순자산이 67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테리는 포브스가 집계한 세계 부호 순위에서 128위를 차지했다.

페굴라 부부는 2011년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버펄로 세이버스를 1억 8900만 달러에 사들인 데 이어 2014년 9월엔 미국프로풋볼(NFL) 버펄로 빌스를 14억 달러에 인수했다. 부부는 공동 구단주다. 피주영 기자

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켈턴에 거주하는 폴 콕(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콕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콕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콕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콕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

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값이 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콕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콕씨는 주수 최 방, 존 선현,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콕씨와 공모한 방식은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

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콕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콕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조리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VA주정부 스킨머신 단속권 회복

대법원, 규제금지 가처분 무효화

버지니아 주정부가 다시 스킨머신 단속 권리를 회복했다.

버지니아 대법원 3인 재판부가 하급 법원의 스킨머신 규제 및 단속 금지 가처분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단속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특정 행위나 행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할 경우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렵지만, 이같은 행동이 도박과 관련돼 있다면 어려운 일 아니다"고 밝혔다.

스킬 머신은 슬롯 머신과 비슷한 게임 기계이지만, 스킨 머신 제조업체와 운영업체들은 상금을 타기 위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박 게임 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2020년 스킨 머신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랠프 노덤 당시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정부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을 1년 늦췄다.

주정부는 2021년부터 단속이 가능했지만, 규제 및 단속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다시 단속이 불가능해졌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주대법원에 하급법원 가처분 심사를 요청했으며, 이번에 가처분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주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옳았다"며

서 "버지니아는 수세기에 걸쳐 도박을 규제해왔으며, 대법원 판결로 각 지역 검사장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스킨 머신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주정부는 스킨머신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주정부가 즉각 실행에 옮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컨비니언 스토어와 주유소, 식당-술집 등에서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스킨 머신을 통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경우 관련 스톨 비즈니스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 측에서는 단속을 무마하거나 최대한 늦추고, 오는 12월 그린스빌 순회법원에서 예정된 재판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과 카지노 업계의 로비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즉각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명품 비행기 타고 단풍 구경을...

VA 컬페퍼 공항 28-29일

CAF 워싱턴 지부가 버지니아 컬페퍼 공항에서 28일부터 이틀 동안 명품 비행기를 타고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AF는 1961년 창설된 빈티지 비행기 보존을 위해 창설된 비영리단체다. CAF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 조종사 훈련기로 사용됐던 노스아메리칸 T-6 항공기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T-6 항공기는 최대 시속 200마일, 크루즈 항속 145마일을 자랑한다. 1인당 요금은 450달러다.

1942년산 보잉 PT-17 스티어맨 항공기는 315달러, 페어차일드 UC-61은

225달러, 그루먼 AA-1B는 125달러다. 단풍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www.capitalwingbirdrides.otg)에서 예약해야 한다. 공항 입장은 무료이며, 활주로와 행사장에 전시된 각종 항공기와 전쟁 장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제트엔진 헬리콥터 프렌치 알루엣, 전세계에 세 대 뿐인 후지 LM-1 항공기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 당시 TBM 어벤저 토피도 폭격기, 발터 BT-13 폭격기, 스티븐 OY-1 폭격기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폭격기는 1944년 사이판 공습에 직접 참여했던 기종이다. 김윤미 기자



UVA 학생단체 팔레스타인 옹호 논란

버지니아 대학(UVA)의 한 학생 단체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격을 정당화 행위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당국이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 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UVA의 학생단체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은 "식민지배를 받는 받는 피압박 민족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며 "21세기 전례

가 없었던 이 공격은 가자지역 전사들이 불법적인 국경 펜스를 무너뜨리는 등 매우 용감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토드 길버트 버지니아 하원의장(공화)은 "내 모교의 일부 학생들이 무고한 양민에 대한 강간, 납치, 심지어 어린 아이의 목을 베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

다"면서 "짐 라이언 UVA 총장이 가장 강력한 말로 비판하고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총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우리 커뮤니티에 슬픔과 공포, 분노를 자아내고 다른 종교와 이념 진영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아무리 갈등이 심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치열한 토론을 존중하는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W.T. 웃슨 고교 개명 확정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W.T. 웃슨 고교의 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이름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1929년부터 1961년까지 32년동안 교육감으로 재임했던 윌버트 터커 웃슨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하지만 최근 웃슨 전 교육감은 흑백통합학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이 새삼 문제가 되면서 개명 주장이 터져나왔다.

웃슨 전 교육감이 1959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항의 서한에 따르면 "흑백통합학교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근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역 사학계의 검증을 거쳐 웃슨 전 교육감의 행적을 확인하고 개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9일 모임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이름을 딴 고교를 흑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 이름으로 재헌정했다.

또한 2017년에는 역시 남군 장군 출신인 J.E.B 스투어트의 이름을 딴 고교를 저스티스 고교로 개명했다.

1962년 개교한 웃슨 고교의 재학생은 2400여명이다. 김옥채 기자

블루릿지산맥 이어지는 주립공원 개장

버지니아 라운드 카운티에 위치한 스위트 런 주립공원(11661 Harpers Ferry Rd, Hillsboro, VA)이 정식 개장했다.

이 공원은 지난 5월말 임시 개장했다가 지난 주말 글렌 영킨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장 행사를 가졌다.

스위트 런 주립공원은 42번째 주립공원이지만, 라운드 카운티에는 처음 들어서는 주립공원이다.

이 공원은 884에이커 부지에 스위트 런과 파이니 런 하천이 흐르며 11마일 하이킹 코스와 9마일 승마코스가 블루릿지 산맥 및 애플래치안 트레일, 하퍼스 페리 국립공원 등과 이어진다.

지난 2016년 로버트 레겟과 디 레겟 부부가 604에이커 땅을 주정부에 기부

하고 인 280에이커를 소유한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정부에 할양하면서 주립공원 계획이 수립됐다.

공원에는 피크닉 파빌리언과 어린이 자연생태 놀이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1840년대 농장주택이 복원돼 있다.

캐빈이나 캠핑 사이트는 개설돼 있지 않지만, 조만간 화장실을 갖추지 않는 프리미티브 캠프그라운드도 들어설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와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하원, 오늘 하원의장 선출 투표

공화 일부 반기에 진통 예상

하원이 오늘(17일)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공백에 따른 마비 사태 해소를 시도한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두 번째로 의장 후보로 뽑힌 짐 조던(사진) 법사위원장이 의원들로부터 가결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출 과정에 큰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톰 에버 하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17일 정오에 하원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이 16일 보도했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CNN에 “하원의장이 없이 하원을 열어 미국 국민을 위한 일을 하거나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다”면서 “우리는 17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장 선거는 후보를 추천한 뒤 의원들이 순서대로 호명을 받으면 직접 지지후보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선 위해서는 재적(433) 과반인 217명의 표가 필요하다.

하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은 연초 하원의장 선거 때처럼 자당 하키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하원의장 후보로 추천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던 위원장이 당선이 되려면 공화당(221명)에서 217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5명 이상 이탈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조던 위원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첫 하원의장 경선에서는 99표를 받아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113표)에게 패배했다.

친(親)트럼프 강경파인 그는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 설득 문제로 후보직을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13일 치러진 두 번째 경선에서는 124표를 받았다. 공화당은 당시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 때 조던 위원장을 지지할 지를 별도로 투표로 확인했는데 이때도 5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던 위원장이 217표 확보를 자신할 때까지 투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던 위원장은 “그렇게(본회의 전 217표 확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의 도한 대로 내일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 소속 하

원 의원들에게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면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던 하원의장 후보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등 공개적으로 반대편을 표명했던 일부 의원들이 지지로 돌아서는 등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분석했다.

다만 카를로스 기메네스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여전히 축출된 매카시 전 의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의원도 일부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짐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명 미만의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하원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연초처럼 반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당시 당내 강경파 20명 정도가 반복적으로 반대하면서 15번의 투표를 진행한 끝에 겨우 의사봉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의사진행 규칙과 관련해 적지 않은 양보를 강경파에 했다.

조던 위원장은 하원 본회의 투표에서 단번에 의장 선출을 못할 경우 2차 투표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우리는 의장을 뽑을 것”이라고 말해 ‘끝장 투표’를 시사했다.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 증오범죄로 희생

시카고 근교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범죄에 의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세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미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가 전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셉 추바(71·사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추바는 지난 14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의 플레인필드 다운십의 한 주택에서 6세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바는 모자 자세 들어살던 주택의 집주인으로,

현지 경찰은 “용의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피해자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했다”라고 말했다. CAIR 시카고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악의 악몽이 벌어졌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연방수사국(FBI)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가하는 위협을 추적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쓰리 컴퍼니’ 배우 수잔 소머즈 77번째 생일 하루 앞두고 별세

1970~80년대 미국 TV 유명 시트콤 ‘쓰리 컴퍼니(Three’s Company)’ 출연 배우로 유명한 수잔 소머즈(사진)가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했다. 소머즈는 2000년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아 줄곧 치료해 왔으나, 지난 7월 이암이 재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머즈 가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머즈가 23년 넘게 유방암을 앓아왔다”며 “이날 오전 세상을 작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그녀의 7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다”며 “가족들은 그녀의 특별한 삶을 축하할 것이고, 그녀를 사랑해준 많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것”이라고 말

1970년대 ‘600만불의 사나이’ 등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소머즈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 ABC 방송에서 방영된 시트콤 ‘쓰리 컴퍼니(Three’s Company)’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멕시코 카르텔, 펜타닐 유통 금지령

‘좀비마약’ 펜타닐의 공급처로 지목되는 멕시코의 대형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가 조직원들에게 제작과 유통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에 중독된 중국 여성

윌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날로아 카르텔이 이 같은 방침과 함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직원은 처형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번 달 초 시날로아의 본거지인 쿨리아칸에서 ‘펜타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령은 현재 미국에 수감 중인 시날로아의 수장 호아킨 구스만을 대신해 카르텔을 이끄는 자녀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대폭 강화한 미국 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아킨 구스만의 자녀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높았던 오베디오 구스만(33)은 지난 1월 멕시코 군경에 체포된 뒤 미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나머지 자녀들도 체포해 미국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카

르텔 상층부가 조직원들에게 내린 펜타닐 제작과 유통 금지령은 실제로 엄격하게 실행 중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펜타닐 제작 공장을 운영했던 한 조직원에 따르면 카르텔의 금지령을 위반한 5명이 처형됐다.

또한 최근 10일간 시날로아의 본거지에서 펜타닐 금지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펜타닐 금지령이 일시적일 뿐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펜타닐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펜타닐과 관련한 시날로아 카르텔의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날로아 카르텔이 펜타닐 제작을 중단해도 마약 피해는 줄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펜타닐 유통 중단으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불법 마약의 유통을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서 또 열차 사고 이번엔 콜로라도서

미국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5일 오후 이 지역 북부의 25번 주 간 고속도로에서 열차 탈선과 철도 교량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고속도로의 남북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푸에블로 사이를 오가는 차량은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당국은 이 도로가 언제 다시 개통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도로는 관광지로서 유명한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여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이 고속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석탄을 운송하던 열차가 철도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와 함께 고속도로 위를 지나던 철도 다리 상판이 붕괴하면서 도로 쪽으로 떨어져 내렸다.

당시 이 다리 아래를 지나던 트럭이, 철도에서 떨어져 내린 열차에 깔리면서 60세 트럭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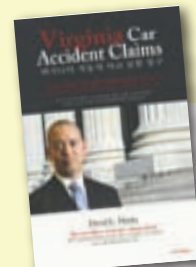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맥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health
markets[®]
건강보험마켓



**귀하의 삶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의
메디케어(Medicare)가 필요하신가요?**

올바른 메디케어 혜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오늘 전화하십시오!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격증 소지 보험 에이전트:
1-800-601-868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현지 시간)

HealthMarkets Insurance Agency, Inc.는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은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 에이전트는 가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3 HealthMarkets 48789aKOR-HM-0923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155명 아닌 199명”

바이든 “가자 점령, 큰 실수 될 것”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자체를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송된 미 CBS ‘60분’ 인터뷰에서 “하마스과 하마스의 극단적 요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마스에 대해선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버금가는 야만 행위를 저지른 집단을 쫓고 있고, 하마스를 공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마스 섬멸 작전에 동의하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헤즈볼라와 그 단계를 후원하는 이란에 대한 메시지’를 묻자 “하지 말라(Do Not)”는 말을 네 차례 반복했다.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집트로 이어지는 ‘라파 통로’에서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을 제지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공개적 노력”이라며 “그간 가자지구 포위 작전을 편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삼가 온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면적 점령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고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스라엘의 지상전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자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전적인 지지에서 일부 변화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16일 소식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대의 의미를 담아 바이든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미매체 약시우스는 바이든의 방문은 이스라엘에 지지를 표현하고,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전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17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dpa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의 지상 공세에 온전히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서방 다수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하마스 파괴 이후에 대한 장기적

인 계획이 없다면 가자지구 지상전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BC는 이스라엘은 자국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할지, 그 후엔 어떻게 되는지 결정해야 하며 하마스가 제거되면 누가 인구 24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를 통치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BBC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면 한동안 점령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하마스 군사본부, 로켓 발사장 등 250여 곳을 폭격하는 등 지난 7일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을 벌였다. 이날 공격으로 하마스 고위 사령관 중 한 명인 무타즈 이드가 숨졌다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육상 진입 준비도 이어갔다. 이스라엘 공군은 최근 육군 최고 지휘관들을 전투기에 태워 가자지구 북부 상공을 조감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005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이후 가자시티 등을 가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이 기존에 파악된 155명이 아닌 199명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하加里 이스라엘 고대변인은 “인질이 추가로 확인돼 가족에게 통보됐다”고 말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인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소영 기자

F-22, B-52 수도권 상공 출격... 미국 ‘3개의 전선 끄떡없다’ 과시

(우크라이나·중동·한반도)

서울 ADEX 2023서 일반에 공개 미국 핵심 공중전력 참가 이례적 북한에 경계망동 말라는 메시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가 16일 수도권 상공에 떴다.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의 비행도 17일 일반에 공개된다. 미국이 자랑하는 핵심 공중전력이 한반도에 나타난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로 전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랩터는 화려한 기동을 뽐냈다. 폭발

적인 엔진 출력으로 100m가 채 되지 않는 활주 거리로 이륙한 뒤 급상승과 급선회를 반복했다. 하늘로 치솟을 때는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U턴하는 데는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상에 전시된 랩터 1대는 50m 올라 리 밖에서 관람객을 맞았다. 미국이 아끼는 자산인 만큼 스텔스 도료, 무장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랩터가 직전에 한국에 온 건 지난해 12월 한-미 공중 연합훈련 때였다. 랩터를 수도권 상공에 띄운 것 자체가 북한을 향해 경계망동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B-52의 17일 개최식 참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찰스 캐머런(ADEX 미군지원단장) 대령은 이날 미디어데이 브리핑에서 “B-52는 지상에 전시되



16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국산 전투기 KF-21이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2 이날 비행 중인 공군 블랙이글팀. 3 지난 7월 한반도에 전개한 B-52H 전략폭격기가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는 않고 계획된 시간에 ‘플라이바이(Fly-by-근접경로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B-52의 국내 공군기지 착륙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B-52는 6400km를 날아가 전술핵 등 사거리가 200km에 이르는 32t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랩터와 B-52의 한반도 출격을 동시에 알린 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국은 2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틈을 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 억제력의 견제함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17일부터 몇새간 열리는 이번 ADEX에 미국은 MQ-1C ‘그레이이글’ 무인 공격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공중전력은 물론 M270 MLRS(다연장로켓시스템) 등 지상 장비도 처음 전시한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실물 기체가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시범 비행도 이뤄진다.

이근평 기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상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들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원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985,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680,000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클립턴 싱글홈



\$1,350,000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우드브릿지 타운홈



\$400,000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4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4년에는 메디케어 플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Montgomery, Howard, Prince George County 등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새로운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Northern Virginia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800-232-5014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3년 10월 15일~12월 7일

<p>애난데일</p> <p>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p>	<p>센터빌</p> <p>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p>	<p>엘리콧시티</p> <p>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p>
---	---	---

* 메디케어 / 건강보험 사무직원 구합니다.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973-5933



Elizabeth Kim
703-642-7578



박종희
703-642-0305



Michelle Kim
703-337-0910

25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	----------------------------	---------------------------------	--

지상군 투입 초읽기... 가자지구 재점령은 '악수' 될 듯

하마스의 성동격서 기만술 먹혀
이스라엘의 방심 겹치며 큰 타격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마스의 공격 개시 열흘 만에 사망자만 1500명(하마스 포함 4000명)을 넘을 정도로 큰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은 지상전으로 대대적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확전에 따른 인도주의 재앙이 예상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마스는 이번엔 육·해·공 3차원 침투로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뚫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스마트 철책'은 하마스의 폭탄과 불도저에 무너졌고 감시탑은 드론이 투하한 폭탄에 망가졌다. 이스라엘 신베트(국내 정보기관)는 하마스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인지했지만, 기습 공격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을 짰 하마스, 군사적 우위와 첨단 기술을 믿은 이스라엘의 방심이 겹치면서 이스라엘은 치명타를 입었다.

하마스 성동격서에 당한 이스라엘

하마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병법을 이용해 초기에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줬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 주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카타르의 자금 지원과 가자 지구 주민의 이스라엘 내 노동 허가를 이스라엘에 요구했다. 이런 움직임은 하마스가 무장투쟁보다 경제 재건에 몰두한다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만술에 당했다.

하마스는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운동'이란 뜻이다. 무장 투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 온건 정파와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마스의 민간인 살해는 처음이 아니다. 하마스는 1993년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합의한 '오슬로 협정'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수십 차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협상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PLO의 외교적 해법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왜 하마스는 이 시점에서 기습 공격을 개시했을까. 하마스에 불리해진 역대 정세와 이스라엘의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 이 두 가지 배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우선, 최근 역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중동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에서 진영에 따라 대리전을 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상대로 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 병력과 장비들이 지난 15일 가자 지구 인근 국경의 작전 대기 장소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왔다. 튀르키예와 카타르는 역내 이슬람 세력을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군부를 지원하며 대결해 왔다.

하마스와 이란의 이심전심

이란은 시리아를 지원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와해를 막았다. 지난 3월 이란과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 하면서 냉랭했던 아랍 국가들이 조금씩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 카타르는 이집트와 사우디와 각각 관계를 정상화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2020년 이스라엘이 UAE·바레인·모로코·수단과 수교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는 이란의 역내 입지를 어렵게 할 변수다. 만약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수교한다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추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어 이란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중동 헤게모니를 놓고 이스라엘-이란-사우디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한 카드로 하마스를 이용했을 수 있다. 이란이 하마스를 오랜 기간 지원하고 지지해온 이유는 바로 이런 효용성 때문이다. 실사 이란이 이번 하마스의 직접적 공격 배후가 아니라도 이심전심으로 하마스는 이란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렸을 것이다.

극우 정치인, 팔레스타인 자국

이스라엘 극우 정부의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도 하마스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는 극우 정치인이 연정에 참여한 정권이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민족 같은 건 없다"고 공언하면서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팔레스타인 측의 분노를 샀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은 지난 1월 이슬람의 3대 성지인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에 출입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자극했고,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산(聖殿山)에서 유대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무슬림의 분노를 샀다. 게다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도시 제니와 나블루스에서 창설된 자생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군사 작전을 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팔레스타인 마을 후와라에서 출몰한 테러리스트가 유대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이 이 마을 주택과 차량에 불을 질렀지만 이스라엘 당국이 막지 못했다.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우파정권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정책의 일환이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역내 반이스라엘 세력의 고립과 이스라엘 극우파의 득세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지하터널 수색에 1~2개월 걸려

"15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까지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최후통첩 시한이 지남에 따라 지상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주요 시설과 군수물자 파괴, 하마스 지도부 격

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땅굴전'을 비롯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결사 항전을 외치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몇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008~2009년과 2014년 지상전에서 많은 병력이 사망했다. 따라서 이번엔 명확한 작전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하마스가 파놓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더 큰 위험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한 병력 집중이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참전을 부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외과 수술하듯 하마스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최단시간에 하마스 지도부 사살, 군사시설과 지하 병참기지를 파괴하고 철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하마스의 지하터널과 시설을 일일이 수색하려면 최소 1~2개월은 소요될 것이다.

반면 하마스 정권 붕괴는 가자 지구를 일정 기간 점령해야 가능한 것인 만큼 작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가자 지구 재점령이 목표라면 이스라엘의 악수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230만 가자 지구 주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를 제거해야 한다"면서도 "가자 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호시탐탐

주변 아랍국가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별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집트는 1979년 이스라엘과 캠프 데

비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를 제한해온 데다 최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외부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다만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북부 주민 110만명에 게 대피령을 내려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집트 국경으로 몰려간다면 이집트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

1982년 이란이 레바논에 창설한 헤즈볼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 북쪽을 노리고 있다.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과 한 달 가량 치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폐허가 된 베이루트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전쟁을 도발하면 레바논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여러 차례 엄포해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모의 훈련을 해왔다. 이스라엘의 전쟁 대비 태세와 이에 따른 엄청난 전쟁 피해가 예상되면서 레바논 내부의 반대 여론 때문에 헤즈볼라 수뇌부는 전쟁 개시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헤즈볼라의 참전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스라엘 멈추지 않으면 통제불능"

미국 정부는 혹시 모를 헤즈볼라의 참전에 대비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헤즈볼라와 이란에 보냈다. 이를 위해 제럴드 포드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함모전단을 동지중해에 배치했다. 미국은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이스라엘에 이미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자칫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다시 한번 촘촘히 점검해야 할 때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당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적에게 허점을 보이는 순간 언제든지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줬다.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와 확고한 국민의 안보관, 그리고 국론 통합이 안보를 지키는 첩경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정지경연구원실장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T. 703-652-4265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2030 당뇨 10년새 74% 급증... “어린데 약 달고 사는 게 우울”

골골 MZ세대 ‘가속 노화’

배달·편의점 음식, 당·육류 식습관
고혈압 10년새 45%, 고지혈증 2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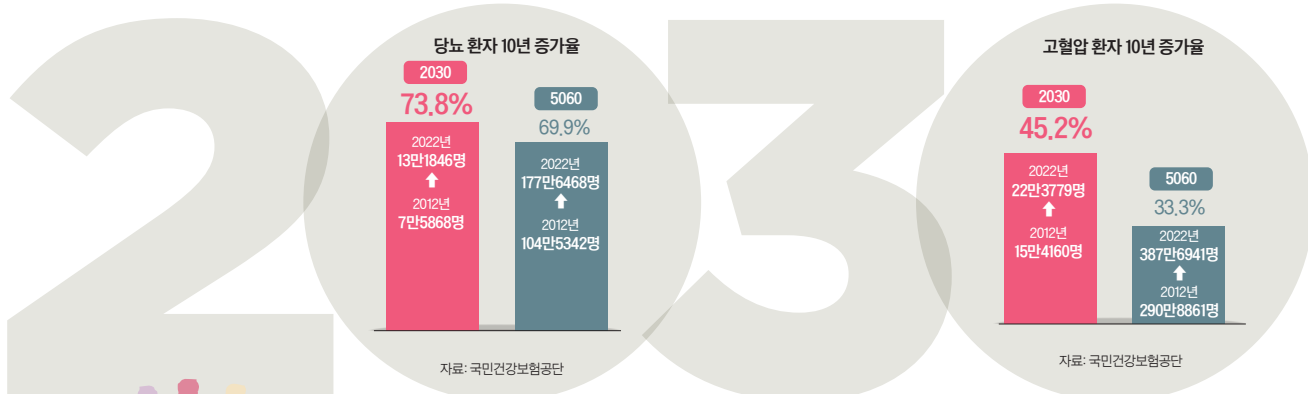
학생 때부터 자세 나쁘고 운동 부족
“10시간 넘게 공부·일, 이십견 늘어”

“젊은층 술·군것질만 줄여도 좋아져
가족 단위 건강식단 챙기는 것 중요”

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소속 연구원인 강모(35)씨는 퇴근 후 자정까지 박사 논문을 쓴다. 주로 라면이나 햄버거,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저녁을 겸한 야식을 먹는다. 주변에선 그에게 ‘갓생’을 산다고들 한다. ‘신(god)’과 ‘인생’을 조화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신조어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그의 성실하면서도 고된 삶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강씨는 건강 걱정은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고지혈증, 지방간, 생활습관형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추가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검진 결과를 뽐뽐하게 채웠다. 지방간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다. 강씨는 이후 병원 처방을 받고 고지혈증 약(스타틴계)을 복용하고 있다. 그는 “30대 중반에 내 몸이 이런 상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강씨처럼 빨라진 ‘노화시계’에 충격을 받는 MZ세대가 늘고 있다. 나이 들어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통풍 등 대사질환이 수십 년 일찍 찾아오는 것이다. 노화의 대표적 질환인 관절병을 앓는 젊은 층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장년층의 병’으로 불리던 만성 대사질환자 증가율은 2030세대가 5060세대보다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실제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가속 노화(accelerated aging)’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20~30대가 부모 세대보다 빠르게 늙고 있다”는 경고다.

고지혈증약을 5년째 매일 먹는 직장인 박모씨는 34세다. 29세에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운동을 하고 육류보단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어린 나이에 약을 달고 사는 게 우울하다. 바빠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비영리기구



5060보다 노화 빠른 2030
※10년간 누적 증가율

“밥보다 빵·파스타, 콜라 하루에 500ml, 물 대신 주스 먹어요”
(32세 당뇨 전단계 한씨)

“술자리 좋아하고, 고기 즐기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요”
(35세 통풍 김씨)

“국내식당은 튀김 위주, 피자·치킨 일주일에 4번 먹어요”
(34세 고지혈증 박씨)

노화·성인병 부르는 2030 식습관 (말·말·말)

“퇴근 후에 자기계발, 밤 12시 출출해 야식 배달해 먹어요”
(35세 지방간 강씨)

(NPO)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위모(35)씨는 서너 달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정형외과에 다닌다. 손목과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다. 병원에선 ‘관절을 아껴 써라’라고 하지만 회계 결산 시즌이나 감사를 앞두면 12시간씩 의자에 앉아 자판을 친다. 위씨는 “관절을 아껴 쓰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찮다”고 했다.

“아직 젊다” 적극 치료 않는 경우 많아
중앙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대사질환자가 중장년층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30대 당뇨병 진료환자는 13만1846명으로 10년 전(2012년, 7만5868명)보다 73.8% 늘었다. 고혈압 환자는 같은 기간 45.2% 증가(15만4160명→22만3779명)했다. 고지혈증 환자도 2배 이

상(9만9474명→21만4243명)으로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50~60대 당뇨 환자는 69.9%, 고혈압 환자는 33.3% 늘어 20~30대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관절이 안 좋아 정형외과를 찾는 20~30대도 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선 오십견이 아니라 ‘이십견’ 환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30대 퇴행성 관절증 환자는 10년 전 16만4636명에서 지난해 20만2198명으로 22% 늘었는데, 같은 기간 25% 늘어난 50~60대 관절증 환자와 비슷한 증가 속도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MZ세대 환자도 많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만성질환자이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아직은 젊다’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는 경우다. 대한고혈압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고혈압 팩트

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20~30대 고혈압 환자의 질환 인지율은 19%였다. 전체 세대 인지율(69.5%)보다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보편화로 ‘진단 건수’가 늘어난 것이 한 요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MZ세대의 만성질환 증가를 온전히 설명해 주진 못한다고 말한다. 심경원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혈압이나 당뇨는 검진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껴 내원하는 젊은 환자가 많다. 검진 확대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진료 현장에선 확실히 20~30대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학계는 중장년층과 다른 MZ세대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주목한다. 기름진 육류와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했고, 최근 탕후루 열풍에

서 보듯 당 섭취도 늘었다. 어디서든 손쉽게 스마트폰을 통해 그런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가공식품과 단순 당, 정제 곡물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내려준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탐으로 이어져 (대사질환의 원인인) 영양 과잉 상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심경원 교수는 “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운동 부족이 쭉 이어진다.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진출해서도 끝없이 바쁜 생활 탓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온다. 그런 생활 패턴이 되면 먹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FT “소아비만, 암 증가 원인 가능성 커”
만성 대사질환은 뇌혈관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지혈증·당뇨병·고혈압 같은 질환들은 지속될 경우 10~20년 동안 서서히 전신에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며 “처음에는 동맥경화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가 많이 진행되면 혈관이 잘 막히거나 터진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6월 ‘설명할 수 없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암 증가’라는 기사를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20~34세 암 발병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25~29세의 암 발병률은 1990~2019년까지 22%가 늘어,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FT는 식습관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아비만의 등장이 암 증가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젊어서 망가진 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젊은 만큼 기회가 많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 심경원 교수는 “젊은 만큼 기회는 많다”며 “젊은 층은 군것질만 안 하고 술만 좀 줄여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돈을 들여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계단을 한 번 더 오르겠다는 생각으로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조현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족 단위로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원 교수는 “가속 노화 문제를 방지하려면 현재의 2030세대는 베이비부머인 부모 세대보다 건강하지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새 대법원장 안 뽑히면 '진보' 김선수가 내년 인사 맡는다

대법관회의, 2월 정기인사 등 결론 법조계 "김명수 대법원장 때처럼 진보 판사들 요직에 앉힐 우려" 권한대행, 새 대법관 제정은 없기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인 16일, 대법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만약 현 상황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대행직을 넘겨받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인사를 주관하게 된다.

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두 번째 열린 이날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 권한대

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과 함께 이런 방침을 정했다. 법관 인사를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법관 인사는 대행할 수 있는 '현상 유지' 업무로 결론을 낸 것이다.

법조계에서 중도 성향으로 평가하는 안 권한대행과 달리, 김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가장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대놓고 요직에 배치한 것이 아니냐"라며 "김선수 대법관이 인사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같은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법관 정기인사를 위한 지명, 추천 등 사전 절차는 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밟게 된다"며 "만약 연말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권한대행이 과연 법원장 인사까지 대행할지에 대한선 재고의 여지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

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직무인 대법관 후임 임명 제정을 위한 천거 등 사전 절차는 권한대행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제정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사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는 퇴임 100여 일 전인 4월 초에 시작됐다. 그러나 안 권한대행, 민유숙 대법관의 경우에는 퇴임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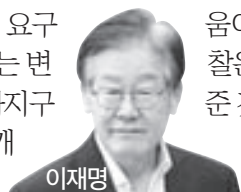
원장 공석 사태로 아무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는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 파행도 불가피하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에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균용,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발령=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이종석(15기) 헌법재판관,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19기) 대법관 등을 추천했다.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발령돼, 연말까지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지원·이병준 기자**

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기소... 검찰 "수차례 위증 요구"

위증한 혐의 김진성도 함께 기소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재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16일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법정에 서 위증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백궁정자지구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깨는 과정에서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토론회에선 이를 부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병량 이) 고발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해잖아"라며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거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

를 작성하고 2019년 2월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려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달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던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날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허정원 기자**



향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선수단 출국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향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출국식을 마친 뒤 탑승게이트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21개 종목에 208명의 선수가 출전해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다녀오니 팀원 된 팀장... 중노위, 성차별 첫 판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되면 차별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정하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여성인 A씨는 육아휴직 전에는 과학·기술서비스 업체의 파트장(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시점이 다가오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

했다. A씨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회사는 팀장이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점과 부서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그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다. 파트장 직위는 해제됐다.

1년의 휴직을 마치고 2020년 복직한 A씨에게 주어진 자리는 휴직 전과 달랐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고, 부서와 업무까지 변경됐다. A씨에겐 육아휴직 전에 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가 부여됐다. 그는 다시 팀장으로 승진하려 했으나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가 내려졌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여성 파트장 휴직하자 부서 통폐합 직위 강등하고 승진서 배제시켜 "정당한 승진기회 부여" 시정명령 근로기준법 아닌 성차별 제도 적용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이 회사 육아휴직 사용 남녀의 승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비슷(남성 6.3년, 여성 6.2년)한 만큼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회사의 남성 근로자는 650명, 여성은 25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다. 반면에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를 보면 남성 20명, 여성 54명으로

정반대다.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까지 평균 6년 이상이 걸렸는데 비육아휴직자는 4.3년이면 승진했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비육아휴직자에 대한 빠른 승진은 대부분 남성에게 적용되는 만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육아휴직자끼리 비교하면 평등했지만, 회사 구성원 전체로 보면 여성에게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만큼 기본급 인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정하고, 육아휴직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차별 규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규정 등으로 A씨는 복직 이후 승진 점수를 채우고도 세 차례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성차별 시정 제도에 따라 이뤄졌다. 통상의 심판 사건은 개별 피해자 구제에 한정되는데 이번엔 성차별 시정이 적용되면서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부과됐다. 박정현 중노위 심판1과장은 "육아휴직이 근로자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총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우리말 바꾸기

널부러질까, 널브러질까?

다음 중 바른 표현이 아닌 것은?
 ㉠ 널부러지다 ㉡ 널브러지다 ㉢ 너부러지다

몸에 힘이 빠져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축 늘어지는 상태를 나타낼 때 ㉠과 같이 '널부러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계주를 끝낸 주자들은 한동안 운동장에 널부러져 있었다"처럼 쓰인다. 그러나 '널부러지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널부러지다'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다.

정확한 표기는 '㉡널브러지다'이다. '널브러지다'는 "그들은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앉아 있었다"처럼 몸에 힘이 빠져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축 늘어지다는 뜻으로 쓰인다. '널브러지다'는 또한 "방에는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다"처럼 너저분하게 흐트러지거나 흩어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계주를 끝낸 주자들은 한동안 운동장에 널부러져 있었다" 역시 "계주를 끝낸 주자들은 한동안 운동장에 널브러져 있었다"로 고쳐야 한다.

비슷한 단어로 '㉢너부러지다'도 있다. "그는 지친 얼굴로 방바닥에 너부러졌다"처럼 힘없이 너부족이 바닥에 까부러져 늘어지다는 뜻으로 쓰인다. "짙 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여기저기에 너부러졌다" 등과 같이 죽어서 넘어지거나 엎어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내년 대선과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



이중원
 변호사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11월 일부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가 열린다. 2024년은 전반 기엔 민주, 공화 양당의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11월은 대통령 선거로 들쭉날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특히 아시아계 유권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이미 아시아계 유권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화당 역시 아시아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이미 니키 헤일리 전 UN대사와 비벡 라마스와 미 등 인도계 2명이 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인 유권자들은 내년 선거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고, 후보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전체 한인 사회의 의견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유권자 70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그 결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꼽은 내년 선거 최대 쟁점은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41%가 1순위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이 16%, 폭력 범죄(violent crime)가 2, 3위를 차지했다. 한인 유권자들만 따져보면, 38%가 인플레이션을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적했고, 불평등(19%), 기후변화(12%)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간 아시아계 사회를 뒤흔들었던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과 반아시안 정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이다. 아시아계 유권자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는 6%, 민주당 지지자는 11%만이 인종차별 문제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교육의 질 문제를 우선순위로 꼽은 아시아계 유권자도 3%에 불과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워낙 심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아시안 정서와 인종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인지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눈길을 끄는 점은 아시아

계 유권자의 97%가 후보자의 인종보다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후보가 같은 아시아계라고, 혹은 소수계라고 해서 무작정 찍지는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라티노 유권자와는 다소 비교가 된다. 중장년층 라티노 유권자는 이민개혁과 인종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지만, 젊은 라티노 유권자는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우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시안 유권자와 젊은 라티노 유권자들은 인종이나 이민 문제보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구인난, 그로 인한 스톱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주류 정치인들은 한인 등 아시아계 유권자에 대해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인종차별 없애겠다, 소수민족 차별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공약만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제 한인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년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침에

너무 채우면 터진다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밭농사는 한 해를 망치면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식 농사는 기약할 수 없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三歲之習 至于八十)'는 말은 어릴 때 몸에 밴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백세시대지만 예전에는 평균나이 60을 넘기지 못했다. 칠십세 고희를 맞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여든은 이미 죽은 나이, 세 살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는 말이다.

뉴저지 사는 딸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다녀갔다. 손녀는 6살이라서 말귀도 알아듣고 사람 구실을 하는데 3살짜리 손자는 제멋대로다. 잠시 상냥하게 굴기에 대견해서 칭찬하려는 찰나 본색이 드러나 사고를 친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인내심 부족인지 내 머리는 빙글빙글 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무슨 말로 교양있게 타이려야 하는지 헷갈린다.

애들은 보통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세 살이 돼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고집 부리고 원하는 것이 관찰되지 않으면 울거나 때를 쓴다. 손주는 내 자식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훈계도 못 한다.

요즘 애들은 어른 열 명보다 더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다. 영어가 딸리는 할머니가 간단한 게임

조차 못해 허둥대면 유치원생 손녀가 슬쩍 손가락으로 짚어준다. 딸이 친정에 오면 어릴 적 소꿉친구들이 다들 결혼해 애 데리고 만나는데 이견 완전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온 것보다 더 난리방구통이다.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세 살짜리 인간들은 한결같이 말쑥구러기에 제멋대로다. 손자는 작은 일에도 삐침을 잘 타서 "누굴 닮아서 저러냐" 했더니 딸 친구가 "크리스 삼촌 닮았어요"한다. 크리스는 내 아들! 유전자에 문제 있나 얼핏생각나 "아냐, 크리스가 얼마나 잔뜩맨인데"라고 했더니 다 같이 성토, 한글학교에서 삐침 잘 타기로 일등선수였다는 보고다.

손녀는 하는 것이 수준을 능가해 '천재' 아님 '여우'라고 감탄했는데 알고 보니 고만한 여자 아이들은 한결같이 '아인슈타인'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백여우'다. 신세대 어머니들은 인내심도 기

막혀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가르치고 맞장구를 치는데 누가 애인지 엄마인지 분별이 안된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저토록 충실하게 가르치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나. 잠시 교편생활을 한 과거를 떠올리며 씩씩해진다. 애들은 백지처럼 깨끗하고 마음대로 뒤흔었다.

작은 주머니를 너무 꽉 채우면 터진다. 어릴 적 동무들과 주머니놀이 할 때 공중에 던진 내 주머니는 땅에 떨어지면 실이 터져 공이 튀어나왔다. 욕이 언니가 내 주머니에 공을 너무 많이 넣어 꿰맸기 때문이다.

뮤지컬 공연 물랭루주의 서두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화려한 장난감 없어도, 스스로 한 일에 책임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참모습이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넘치면 상한다.

진정한 사랑의 참모습과 가치를 심어주면 세 살 버릇은 나이 들면 저절로 교정된다. 아이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 물모텔이 올바르게 살면 철없는 아이들도 큰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맞춤 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0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서비스도 고객만족도 TOP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소매, 도매 직판점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사무직(센터빌지점) 가이드

인터넷 최저가항공 홈페이지보다 저렴한 요금!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탑여행사
가을만끽 특선

단풍기차관광 캠퍼랜드

당일관광 10/20 대형버스 출발 마감입박
10/27 대형버스 출발
10/28 대형버스 출발
\$159

2023 성극
SIGHT & SOUND THEATRE
12/20 \$169
Manor Buffet 아이쉬마켓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의 전문 인솔자와 함께 떠나는 원더풀 투어 항공 여행

세라 김
원더풀투어 판매담당 703.663.8534

레나 고

11월 추수감사절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22-11/28 마감입박 **\$1890**

2차출발 2024년 2월 6일

산호세 호텔 조식 후 버섯가르 이동, 카리야 열대우림 국립공원 트레킹, 보트 사파리 투어 (소형 보트로 강을 따라 이동하여 악어, 아구아나, 새, 앵그로브 정글 등 탐험).

12월
크루즈여행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마감입박 \$1,190 (인사이드)
12/2-12/14 \$1,390 (오션뷰)

1월
원시의 땅으로
파타고니아

지구의 땅끝 마을 여행, 빙하와 고산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어울린 감동

10박11일 1/16-1/26 **\$5890**+항공

1월
신비의 인도

12박13일 1/30-2/11 **\$2890**+항공

2월
광활한 대지의 감동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2/14-2/25 **\$3690**+항공

2월
사파리에서 만나는 경이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2/22-3/6 **\$9590**+항공

2월
성지순례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 2/27-3/11 **\$3980**+항공

3월
남미일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12박13일 3/16-3/28 **\$5190**+항공

3월
봄방학특선
남프랑스

6박7일 3/25-3/31 **\$2890**+항공

3월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3/1-3/11 **\$2980**+항공

3월
페루일주

6박7일 3/22-3/28 **\$2890**+항공

4월
정통서유럽

10박11일 4/24-5/4 **\$3490**+항공

4월
정통동유럽

9박10일 4/29-5/8 **\$3290**+항공

4월
고령객 고국일주

4/16-4/26 10박11일(1차)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4-5/4 10박11일 **\$3490**+항공

정통 동유럽 4/29-5/8 9박10일 **\$3290**+항공

5월
발칸&크로아티아

5/2-5/13 11박12일 **\$3990**+항공

스페인 & 포르투갈 5/7-5/17 10박11일 **\$3190**+항공

그리스/터키 5/14-5/24 10박11일 **\$2890**+항공

파노니아 서유럽 5/21-6/2 12박13일 **\$38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4-5/27 3박 4일 **\$1290**+항공

6월
아이슬란드 일주

6/4-6/12 8박9일 **\$5690**+항공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6/11-6/22 11박12일 **\$58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8-6/26 8박9일 **\$3990**+항공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6/25-7/8 13박14일 **\$5990**+항공

북유럽 4개국 6/25-7/5 10박11일 **\$52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6/28-7/4 6박 7일 **\$1690**+항공

7월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7/1-7/4 3박 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9-7/19 10박11일 **\$3490**+항공

8월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8/6-8/19 13박14일 **\$5990**+항공

북유럽 4개국 8/6-8/16 10박11일 **\$52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12-8/18 6박7일 **\$1690**+항공

알래스카 일주 8/15-8/21 6박7일 **\$16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8/23-8/30 7박8일 **\$990**+항공부터

Korea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2024
1차 4/16-4/26
2차 9/17-9/27
3차 10/15-10/25

서울/군산/전주/부산/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서남권 3박4일 제주 일출발 **\$849**+항공
제주 2박3일 제주 수출발 **\$699**+항공
동해권 4박5일 제주 일출발 **\$969**+항공
전국일주 9박10일 제주 일출발 **\$2299**+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TMCI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민비 \$700/여 \$750
미국국민비 \$910 / 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8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여 \$1000(연말)(\$1130(연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 \$550 / 여 \$620

서울성모병원
한신메디피아
차움검진센터
녹십자아이메드
현대아산병원

특전 1 왕성현최초 디럭스 28인승 리우진버스투어

특전 2 모든출선포함 여수해상 케이불카/외도+해금강 유람선/해상 케이불카 충주호 단양물경유람선 서귀포유람선

특전 3 최고급 호텔 숙박 제주롯데호텔/송도메리엇 가제소노킴/여수소노킴 경주리한/인터컨티넨탈 일펜시아 서울노보텔엠베서터 등

특전 4 고향생애 술술나는 먹거리 전주 비빔밥, 남도 한정식, 최정식, 한우육회비빔밥, 안동찜닭, 갈매, 해물죽매기외 육통구이, 갈치조림 흑돼지구이등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출발일 10/23
출발일 매주 월요일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나이아가라

2박3일 대형버스 10월30일
매주 월요일

DC런치크루즈 \$169 주중 \$199 주말 티켓구입가능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미서부 베스트셀러
천심·뉴욕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출발일 매주 월요일

가을 버려코는 두글과 NY 뉴욕 1박2일 /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필라델피아 \$150

마운트버논 & 알렉산드리아 \$150

2023 12/20 성극
Miracle of Christmas \$169
Manor Buffet 아이쉬마켓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정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인공태양 KSTAR, '1억도 300초' 위해 업그레이드 중

핵융합에너지연구원 현지 르포

무한청정 에너지를 꿈꾸는 '한국의 인공태양' 케이스타(KSTAR)가 도약을 위한 변신에 한창이다. 태양 온도의 7배, 섭씨 1억도의 플라즈마를 품을 핵심장치 토카막이 지난 3월부터 텅스텐 타일로 '속옷'을 교체 중이다. 정확히는 '텅스텐 디버터(Tungsten Divertor)'라 불리는 이 부품은 KSTAR의 최종 목표인 '1억도 300초 유지'를 위한 필수 장치다.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성공하려면 핵융합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1억도의 플라즈마를 3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핵융합로 플라즈마의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다. 지구상에서는 수천억 기압으로 추정되는 태양과 같은 극초고압 없이 핵융합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2007년 가동을 시작한 KSTAR는 2018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1.5초 유지를 시작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 2021년 세계 최초로 30초 유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30초가 한계였다. 토카막 내벽을 감싼 기존 탄소타일이 1억도의 플라즈마를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구 과학로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을 찾아 타일 교체 현장을 지켜봤다.

무게 1000t 거대 우주선 같은 KSTAR 지름과 높이가 각각 10m, 무게 1000t에 달하는 KSTAR는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부직포로 만든 흰색 방진



윤시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원장이 KSTAR 내부 토카막에 새로 설치한 텅스텐 디버터를 점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복을 덮어쓰고 높이 1m 남짓한 작업창을 통해 토카막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텅스텐 타일을 제작한 연구장비 생산 중소기업 비츠로넥스텍 기술진들이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사람들과 좁은 토카막 내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발 아래에 이미 설치한 텅스텐 타일 일부가 놓여 있었다. 길이가 채 1m가 안 되는 길쭉한 모양의 타일 하나의 무게는 150kg에 달한다. 텅스텐은 비중이 19.25로 금속 중 가장 무겁고, 녹는점이 3422도에 달한다. 탄소 소재에 비해 녹는점이 높지는 않지만, 대신 밀도와 강도가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높아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것도 쉽다. 이달 중순까지 들어설 텅스텐 타일은 총 64개. 모두 토카막 내벽 아래쪽에 설치된다. 다른 곳은 기존 탄소타일을 그대로 사용한다.

텅스텐이 아무리 열에 강하다해도 1억도의 초고온을 어떻게 견딜까. 기존 탄소타일 역시 30초라지만 1억도의 온도를 어떻게 견뎌올까. 핵융합로가 모

플라즈마 가돌 핵심장치 내벽 초고온 견딜 텅스텐 타일 설치 핵융합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

텔로 하는 태양도 표면 온도는 섭씨 약 5700도, 중심부라도 1500만도 정도다. 그 비결은 초전도자석과 플라즈마에 있다.

윤시우 부원장은 "1억도의 플라즈마는 초전도자석을 이용해 토카막 내부에 뜬 상태로 있게 된다"며 "플라즈마의 중심 온도는 1억도이지만, 위쪽 부분이 가장 덜 뜨겁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뜨겁다"며 텅스텐 타일을 쓰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텅스텐 타일 설치가 끝나면 11월부터 다시 플라즈마의 불을 지펴서 올 연말까지 1억도 50초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300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억도 플라즈마 300초 유지'는 핵융합발전의 선결 조건이다. 300초 동안 1억도의 초고

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핵융합로를 24시간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KSTAR와 별도로 실증로 설계 착수

핵융합발전을 위한 계획은 올 들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STAR와 별도로 지난 2월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6월엔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에 착수했다. 한국형핵융합연구구라는 명칭을 가진 KSTAR의 목표가 핵융합로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플라즈마 1억도 이상 300초 유지)라면, 핵융합실증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 연쇄반응을 통해 실제 전기 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1단계 예비개념설계 완료, 2030년까지 2단계 개념설계 완료 및 설계 기준 확립, 2035년까지 3단계 공학설계 완료 및 인허가 추진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후 2050년경부터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융합발전은 세계 열강들이 앞다퉀 연구개발에 뛰어 들고 있는 분야다. 바닷물만 있으면 거의 무한정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사능의 위험도 없고, 지구온난화를 부르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다.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 대표적이다. 한국을 비롯 미국·EU·중국·일본·인도·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ITER 사업의 최종 목표는 2035년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1GW)의 절반 수준인 500MW의 열출력을 내는 플라즈마를 300~500초 이상 유지하면서 최적의 운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ITER 회원국들은 공동연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핵융합발전 연구개발(R&D)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핵융합 관련 스타트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40개 이상 활동 중이다.

핵융합 관련 스타트업도 이미 활동

ITER 사무차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는 "한국의 핵융합발전 기술력은 초기 설계에선 미국이나 유럽 다음가는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단계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선핵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해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증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앞당기려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핵융합 분야는 산업 측면에서도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KSTAR와 ITER 참여를 통해 확보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토카막(tokamak):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도넛형 장치

"그것을 왜 하는가"



김상현의 과학 산책

나는 발표가 좋다. 청중이 많건 적건, 거리가 가깝건 멀건, 여건만 되면 수락한다. 쑥스러움도 없다. 티셔츠가 뒤집힌 채 출근한 날의 대형 강연에도, 방송국 카메라와 중고생 1000여 명이 기다리던 날의 대중강연에도 긴장하지

나 주눅 들지 않았다. 희한한 일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일상 대화에서는 화제가 떨어지기 일쑤이다. 인터뷰나 토론으로 사람들 앞에서 건 별 받는 기본이다. 그런데 수학 발표는 다르다. 깊이 생각해 보고, 확실하게 알아낸 것만 이야기한다. 그 순간 그곳에서만 나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무대는 짜릿하다. 대부분의



수학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발표 중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있다. '그것을 왜 하는 거죠?' 특히 권위 있는 교수가 새파란 연구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상황은 악몽이다. '이 결과는 의미도 재미도 없네요'를 에둘러 말하는 것만

같다. 유명 수학자 이름 거론하기, 오래된 문헌 들춰내기, 물리학자가 궁금해한다며 남의 핑계 대기, 이런저런 대응을 해 보았자 솔직히 논리는 공색하다. 대답을 겨우 생각해도,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죠'라며 질문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 허구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논리 장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다.

사실 정당한 궁금증이다.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당신 연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자면, 여러 도전

과 위기와 마주한 인류가 왜 오늘 당신의 발표를 경청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좋은 답은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질문에 이성적인 대답을 찾을 만큼 똑똑하거나 현명하지 못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하학자 중 한 명인 현재의 위로다. 덧붙이는 그의 조언. "결국 따라야 할 것은 당신의 진심과 열정입니다." 연구의 참된 의미는 진심 속에서만 보이고 열정 속에서만 확인된다는 뜻일 것이다. 삶의 의미도 비슷할까. 궁금하다.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센터별 센터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근골격계 치료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주요 근육 관절 통증
산전/산후 통증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키 작아 걱정하던 외손주, 미국 학교서 '달리기 상장' 받은 사연

9월 초순이었다. 교육정책과 방향 설정을 위한 교육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KAIST 총장, 서울대 총장, 세 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주제는 '교실이 바뀌어야 교육이 성공한다'였다. 다른 세 분은 모두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으나 나는 초·중고, 대학교육 모두를 경험했기에 사회자가 먼저 내 견해를 물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신념에서 초·중고 시절 경험담을 소개했다.

허약했던 손자, 지금은 심장내과 교수

40여 년 전, 미국에 사는 큰딸 집에 갔을 때였다. 외손주가 초등 4학년인데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편이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다. 우리 애는 열심히 뛰었지만 언제나 꼴찌였다. 내 딸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담임선생과 상의하곤 했다. 운동회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애가 운동회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준 상'이었다. 꼴찌는 했지만, 열성만은 제일이었으니까 준 것이다. 그 애가 지금은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초등 학교 때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애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 거짓 없는 정직, 욕하거나 어떤 폭력도 큰 잘못이라는 정신, 부족한 점 때문에 책망받는 것보다 적더라도 잘한 일에 칭찬받는 교육이었다. 학교장은 선생과 학부모가 합심해서 사랑이 있는 교육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큰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 학생 수가 적을수록 사랑이 많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서 가난했고 병약했던 나를 중학교에 가도록 부모와 의사를 설득해 주었던 윤태영 선생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있을 때였다. 고2를 지도할 당시 반 학생이 자살하려고 극약을 먹었다. 부모가 일찍 발견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위기를 넘겼을 때였다. 학생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찾아갔다.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깨어나는 중이었다. 내가 얼굴을 맞대고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통통 부어오른 눈을 뜨면서 나를 보는 모습이 "내가 죽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



그림=김지은 기자

꼴찌 했지만 "가장 열심히 달려" 어릴 때는 '사랑의 교육'이 최고

중·고교 성적은 큰 문제 아니라 사제·친구간 공동체정신 익히야

대학은 문제의식 키워가는 곳 교실이 바뀌어야 새 교육 가능

이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왔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라고 했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가 진심으로 책망했다. "너 이제 무슨 짓이냐. 너를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너를 위하고 사랑하는 나와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죽으려고 했어? 그렇게 네 멋대로 행동하는 법이 어디 있어?"라고. ○○군이 영영 울기 시작했다. "너 이제 깨어나면 또 이런 짓을 할 테야..."라고 물었다. 울음을 그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선생님과 약속이니까 믿어도 되겠다"라고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제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다. 그 제자가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광산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대주 한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

나는 교실에는 '사랑이 있는 대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선생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미래를 약속하는 선한 친구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대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경험을 연장해 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 소신은, 중고등학교 나이 기간에 친구와 이웃을 위하는 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군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불미스러운 행동은 물론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 성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찾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만남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좌우한다.

자주 있는 일이다. 지방에 갔다가 제자들을 만난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대학에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점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

금은 그 당시의 공부한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했다. 내가 "이상하다. 나는 대학 때 들은 강의와 공부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라며 웃었다. 다른 제자가 "선생님은 기억력이 특출하셨지요"라고 물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학문을 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나는 대학교와 학문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통된 문제의식 없이는 더 좋은 미래교육과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는 배출되지 못한다. 교수는 언제나 문제의식을 동반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과 결론 탐구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전공에 갇힌 한국의 대학 교육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독서가 병행하지 못하고 모든 공부를 수능시험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문과 사상의 주체가 되는 인문학적 사유의 결핍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사들도 환자를 대할 때는 과거와 달리 주치의가 동료 교수들과 종합진단을 통해 병상을 판단한 후에 다시 주치의가 책임을 진다. 교수들은 그런 초보적인 과정도 밟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독립된 한 과목, 자기 전공 분야에 집중해 학문의 다양성과 사회적 요청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인문학이 설 자리를 스스로 좁혀간다.

나 같은 경우는 독립된 철학과에서 강의하다가 역사학에도 관심을 두고, 문학 영역에도 참여해 '인문학적 사유'를 넓게 경험한 후에 다시 철학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인문학적 사유로 확장된 후에 다시 철학적 학문의 차원이 높아지곤 했다. 인문학보다 역사 문제와 사회과학은 그런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과 융합성이 있는 현실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학 교실에는 문제의식이 필수적이다. 교실이 바뀌지 못하면 학문과 사회의 발전적 희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1면 '대학 순위'에서 이어집니다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가주의 LAC는 지난해에 비해 부진했다. 한단계 물러나 포모나(공동4위)를 비롯해 2단계 밀린 클레어몬트 메케나(공동11)가 겨우 10위권에 올랐고 약진한 하비머드(공동16), 옥시덴탈·스카립스(공동35), 피처(공동39)가 50위권에 들었지만 지난해 공동29위 소카아 메리카, 45위였던 토마스아퀴나스가

◆리저널 대학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는 리저널 종합대학/칼리지 순위는 미 전국을 4군데로 나눈다. 가주가 속해 있는 서부지역의 눈에 띄는 대학은 가주의 경우 켈스테이트가 주류를 이룬다.

리저널 종합대학 서부지구 톱50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이 많다

. 우선 켈폴리 3개 대학인 샌루이스오비스포(1위), 포모나(3), 훔볼트(32)를 비롯하여 켈스테이트는 12계단 뛰어 오른 공동4위 샌호세스테이트를 비롯해, 25위에서 15단계 상승한 스테니슬로스, 몬테레이(14), 치코(16), 세크라멘토(18), LA(21), 노스리지(25), 소노마스테이트(27), 샌마르코스(28), 체널아일랜즈(29), 베이커스필드(34), 도밍게스 힐즈(38)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켈스테이트가 순위에서 약진한 이유는 역시 사회적 이동성 기준에 이들 학교들의 역할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가주지역 리저널 사립대학으로는 세인트메리칼리지오브 캘리포니아(4), 레드랜즈대(7), 포인트 로마 자라네타(9), 캘리포니아루터란대, 마운트 세인트 메리 대(공동11), 켈아츠(16), 도미니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18),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21), 캘리포니아 밥티스트대(30), 우드베리대(40), 프레스노 퍼시픽대(41), 라시에라대(41), 밴가드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44) 등이 50위 내에 들었다.

리저널 대학에는 대개 지역 학생들이 지원해 재학하며 대학원에서는 석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장병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J&B ESSAY CONSULTING, LLC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GREEN

Essays for Kids (Grades 5-8)

VIOLET

Boarding Admissions (Grade 8)

BLUE

Essay Contests (Grades 8-11)

ORANGE

Journals (Grades 9-11)

BROWN

HYPES Portfolios (Grades 10-11)

RED

College Admissions (Grade 12)

WOO'S AUTO REPAIR
자동차 정비

MUFFLER TUNE UP BRAKE BODY GLASS

Woo's Auto Repair Service

엘리컷 BP개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셀샤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에이터

T. 410-313-8039

c. 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Executive Center Rd
엘리컷 BP개스 자동차 정비
Baltimore National Pike
롯데



조기 지원과 정규 지원의 재정보조 신청 절차

▶질문: 조기 입학 신청의 경우 재정보조 신청 절차는 어떠한가요?

대학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학 신청은 일반적으로 지원 시기에 따라 조기 입학 신청(Early Admission)과 정규 입학 신청(Regular Admis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기 입학 신청 중에도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estrictive Early Action, Priority Application 등이 있다. 어떤 형태의 조기 입학 신청이든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해 주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펍사신청, CSS 신청,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고유의 서류의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중 CSS 신청을 안 해도 되는 학교도 있고 특별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 학교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학교에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재정보조 신청 절차 중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은 무엇이며 그 마감일이 언제인지 살펴서 늦지 않게 신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Restrictive Early Action 정책을 쓰고 있는 보스턴 칼리지를 예를 들어보자. 이 학교에 얼리리 지원을 하면 다른 학교도 얼리 액션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에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restrictive(제한적)이라는 말이 붙는다. 이 학교의 경우 2024~2025년도 재정보조 신청을 하려면 11월 16일까지 CSS 프로파일을 접수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2월 1일까지 펍사를 신청해야만 한다.

코넬 대학에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11월 1일까지 재정보조 신청서를 비롯하여 CSS 프로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학생과 부모의 2022년 텍스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설명서 또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라면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합격한 학생은 2월 15일까지, 펍사,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IDOC 서류, Financial Aid Application Certification, 2022년 텍스보고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시다시피 재정보조 신청도 학교 지원만큼이나 복잡하고 많이 신경써야 한다. 학생이나 부모가 일일이 챙길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질문: 조기 지원이나 정규 지원이나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다른가요?

2024~2025년도에 대학 입학을 하게 되는 12학년 학생들은 많은 대학의 지원서와 공동 지원서가 오픈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학 지원 절차 뿐 아니라 재정보조 신청 절차를 계획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조기 지원 마감일은 11월 1일인 대학이 많고 정규 지원 마감일은 1월 1일인 경우가 많다. 두 지원 절차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크게 다르다기 보다는 마감일이 다르고 또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대부분은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어찌됐든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입학 신청과 Financial Aid의 신청은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할 시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질문: CSS 프로파일은 무엇인가요?

조기 입학 신청을 받는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은 프로파일이라고도 말하는 CSS Profile을 동시에 해주어야 한다.

CSS Profile은 각 가정의 형편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파일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물론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사립대학들도 있다.) 과 일부 주립대학들(UVA, 윌리엄 앤 매리 등)이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각 가정의 형편과 수입 구조, 각 가정의 자산 내역(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등), 부모의 비즈니스/농장에 관련된 내용, 이혼 혹은 별거 가정인 경우 이에 관련된 내용 등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 요구하는 마감시기가 다르지만 조기 지원의 경우 마감일은 대부분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이다.

▶문의: 703-576-7803,

Email: topedupia@gmail.com

싫어도 해야 할 일, 참는 법 가르치고... 온실서 벗어나 스스로 도전케 해야

자녀의 성숙을 위한 보약

아이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최대한 피하게 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왜 하나같이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역경 극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까?

“엄마가 맘에 걸렸던지, 이혼을 했던지 등 역경 극복 스토리를 위해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야 할까요?”라며 고민하는 부모까지 봤다.

싫어도 해야 할 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은 삶의 핵심 부분이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더 나은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이다.

유아기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

할 때가 있다. 이때 부모는 자기 맘에 안 들더라도 그들에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성장과 배움의 시작이며, 미래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자립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한다면 공부를 통해 배워야 할 주의력, 인내심, 이해력, 사회성, 책임감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능력을 매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어른들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딜 일도 많듯이 학생들에게는 학업, 교우관계, 성장기 갈등,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고민, 진로

등 그들이 마땅히 겪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성숙하고 능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내정리와 최소도대신 해주며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온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보약이 되기보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혁신의 전략의 일인자인 로자베스 모스 캔터는 그의 저서인 ‘자신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성공 주기를 방해하는 대신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 과거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새로운 위협이 닥쳐도 위기를 덜 느낀다. 리더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극복에 성공하거나 역경을 무사히 극복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 혹은 능력 있는 사회인들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시도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유연하게 넘기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다.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서만 자란 사람은 온실의 화초 같이 약해서 비바람과 햇빛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쉽게 마르고 죽는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아이의 머리와 손발이 되어주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스스로 규칙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서 자신

만의 규칙을 만들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사회에 나가 자신의 일을 훌륭히 마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일원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방식은 좋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지도와 조언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하며, 친구들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싫어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립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더 강하고 지혜로운 성인으로 자라길 바란다.

새라 박 원장 시칼리지 펍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Starting **19.⁹⁹**
Lunch Dine-in Only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⁹⁹ → 6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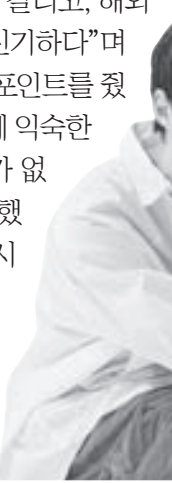
“남성들의 설교를 다 들어주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옥주’라는 인물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성범죄자를 처절하게 응징하는 액션 영화 ‘발레리나’를 넷플릭스 전 세계 영화 순위 2위에 올려놓은 이충현(33) 감독의 말이다. 장편 데뷔작 ‘콜’(2021)로 연인 사이가 된 배우 전종서(29)와 찍은 두 번째 장편이다.

5일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했고, 6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출시해 사흘 만에 62개국 톱10에 올랐다. 버닝썬 게이트·N번방 사건 등을 연상시키는 소재와 충격 액션·맨몸 격투로 남성 폭력배를 쓰러뜨리는 전종서의 살상 무술이 눈길을 끈다.

불법 성 착취 영상물에 희생된 발레리나 민희(박유림)와 그를 위해 복수에 나선 경호원 출신 주인공 옥주(전종서) 등 인물의 행동 동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액션 볼거리를 선호하는 장르 팬이 적지 않다. 네온 빛의 독특한 화면 질감, 이민자들이 드나드는 슈퍼마켓, 화염방사기를 쏘는 노인(김영옥) 등 이국적 풍경도 눈에 띈다. 해외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는 ‘한국의 킬 빌’ ‘여자판 존 워’ 등 할리우드 영화에 견줄다.

11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이 감독은 “국내 시청자를 의식하고 만들었는데, 국내에선 호불호가 갈리고, 해외에선 재밌게 보는 게 신기하다”며 “때려 부수는 쾌감이 포인트를 줬다. 또 유튜브·쇼트폼에 익숙한 요즘, 영화도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발레리나’의 상영시간은 93분이다.

‘포스트 봉준호·박찬욱’을 찾는 요즘 영화계에서 그는 동명 시리즈로 확장돼 히



성범죄 응징 ‘핏빛 액션’ 연인 전종서와 통했죠

영화 ‘발레리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지만, 필름 느낌의 화면 질감을 살렸다. 이충현 감독과 배우 전종서(사진)가 다시 뭉쳤다. [사진 넷플릭스]

트한 단편 ‘몸값’(2015) 때부터 주목받았다. ‘몸값’은 모텔방에서 여고생(이주영)과 흥정을 벌이던 아저씨(박형수)의 최후를 그렸다. ‘발레리나’에는 여성에게 몰래 약을 먹여 동영상을 찍는 성범죄자 최프로(김지훈)가 나온다.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최프로는 사실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지질한 신세다.

이 감독은 “여성들을 가사라이팅·그루밍하고 왕처럼 굴면서 부리는 이

런 인물들이 생각보다 불품없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렇게 덧 붙였다. “제가 여동생만 돌이거든요.” 다음은 일문일답.

-넷플릭스와 두 작품째다.

“‘콜’ 이후 차기작을 고민하던 중 여러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영화에 통쾌함을 담고 싶었고, 표현 수위, 내용에 대해 자유롭길 위해 바로 넷플릭스를 떠올렸다.”

-전종서를 거듭 캐스팅했는데.

“제가 아는 전종서는 일단 꽃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뒤를 계산하지 않고, 타 죽더라도 볼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다. ‘발레리나’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영감을 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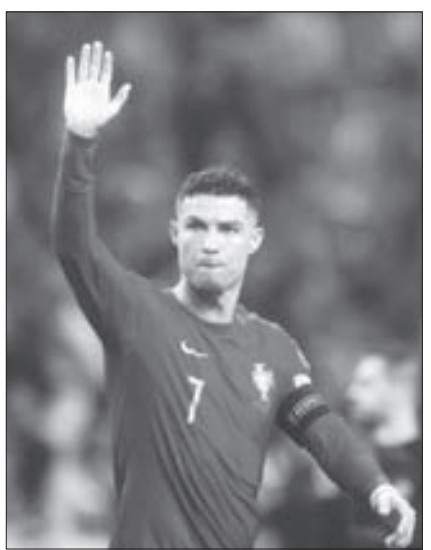
-옥주가 친구 민희를 위해 복수에 나선 계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데.

“끝까지 고민했다. 민희가 겪은 범죄 피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이랑 영화의 결이 달랐을 거다. 많은 사람이 이미 아는 사건도 있고 해서 영화에서 파고들면 더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다.”

영화는 최근 젊은 세대에 각광받는 레트로풍 모양새다. ‘중경삼림’(1994), ‘타락천사’(1995) 등 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의 1990년대 청춘 영화 분위기다. 광각·망원렌즈를 과감하게 쓰고, 조명·색 보정도 필름 질감을 살렸다. 이 감독은 “왕자웨이 감독을 좋아해서 무의식적으로 영향받은 것 같다”며 “옛날 영화가 개성이나 색깔이 더 있는 것 같다. 지금 나오기 어려운 그런 독특한 감성에 끌린다”고 했다. 합합 뮤지션 그레이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전종서는 이 감독 단편을 지진 재난물로 확장한 티빙 드라마 ‘몸값’의 주인공도 맡았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국내 방영 후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를 통해 북미와 유럽의 27개국에서 공개돼 12일 파라마운트+ TV쇼 순위 1위(플러스패트를 집계)에 올랐다. ‘발레리나’와 드라마 ‘몸값’은 ‘D.P.’ ‘지옥’ 등을 만든 SLL 계열 제작사 클라이맥스 작품이다.

이 감독은 ‘몸값’ 원작 단편의 판권을 판 뒤에는 손을 뗐다. 그는 “연출 제안도 받았지만, 내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 연출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준비 중인 건 SF 장르인데, 어려운 한국 SF 시장도 언젠가 풀리면 좋겠습니다.” 나원정 기자



호날두, 전 세계 축구 선수 연간 수입 1위

사우디 진출 몸값 2억6천만불 하루 수입 71만2천 달러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진출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사진)가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4일 발표한 최근 1년간 축구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호날두는 2억60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호날두는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에 입단했으며 이때 계약으로 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포브스는 또 나이키 등 후원사들로부터 호날두가 받는 금액도 6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호날두의 연간 수입 2억6000만 달러를 하루로 나누면 71만2000달러 이상

이다. 지난해 이 집계에서 1위를 한 선수는 킬리안 음바페(프랑스)였고 당시 연간 수입은 1억2800만 달러였다.

올해 2위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로 그의 연간 수입은 1억3500만 달러다.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가면서 미국 프로축구에 진출한 메시보다 2배 가까운 연간 수입을 올리게 된 셈이다.

상위 5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선수가 절반이 넘는 3명이다.

호날두 외에 3위 네이마르(브라질)가 1억1200만 달러, 5위 카림 벤제마(프랑스)가 1억6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4위는 지난해 1위였던 음바페로 1억1000만 달러의 연간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로는 맨체스터시티에서 뛰는 엘링 홀란(노르웨이)이 5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나 전체 순위로는 6위고, 5위 벤제마와 격차도 큰 편이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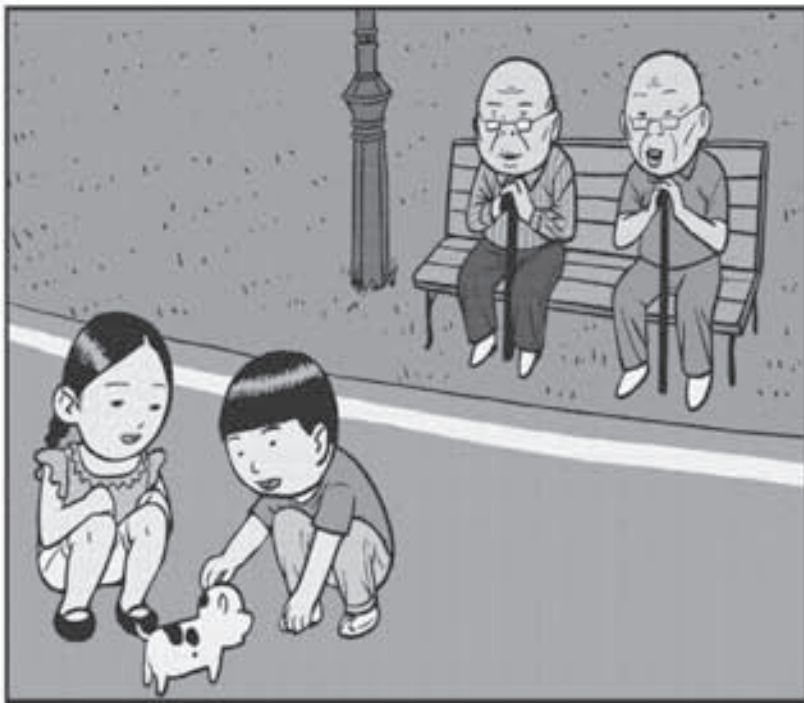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행복**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광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 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포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초보자 가능
- 유급휴가 / 401K 지원
-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주 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연락처: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중앙일보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험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짜실분 엘리콧시티, MD 443-310-9247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코리아 bbq 레스토랑 서버(파트타임, 풀타임) 구함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아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 일할 홀 담당하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텔 그릴샌드위치 짜실분 경험자 우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로얄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움,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키맨, 스키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현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할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불. 캐튼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인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풀,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 703-463-4004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 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생활안내 광고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세탁/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톨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 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5805/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캐비닛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공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토치누핑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닛 공장에서 일할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택) 20년 경력의 핸드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뷰어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휴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빌딩 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 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 분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씩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첼트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맥스(스털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하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Manassas Park) \$2,100 방3, 화장실3, 리모델링 부엌, 나무마루, Fenced Back Yard, 교통편리 ▶703-477-3114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장.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무마루, Deck. 메트로역 바로 앞. 즉시 입주!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 3, 쇼핑몰, 교통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팡니다!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보통맛 · 매운맛

703-470-5238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전기 공사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스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Kate slams the door and throws her books on the floor...)
(케이트가 문을 팡 닫고 바닥에 책을 내던진다...)

Pam: Now come on get a hold of yourself.
팜: 자 이제 진정해.
Kate: But it was absolutely awful!
케이트: 하지만 이건 완전 끔찍해!
Pam: What happened?
팜: 무슨 일인데?
Kate: The test had three questions and my mind went blank on the last question.
케이트: 시험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마지막 문제는 아무 생각이 안나는 거야.

Pam: Well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팜: 있잖아 세상 끝난 거 아니야.
Kate: I don't want to fail this test.
케이트: 이번 시험에서 낙제하기 싫단 말야.
Pam: You answered the first two questions didn't you?
팜: 처음 두 문제는 답을 썼잖아 안 그래?
Kate: Of course. So what?
케이트: 물론이지. 그게 뭐?
Pam: I know you. I'm sure you did well enough to

pass.
팜: 내가 널 알잖아. 시험 통과할 만큼 잘 했을 거야.
Kate: I hope you're right.
케이트: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기억할만한 표현
▶ get a hold of yourself: 진정하다.
"I know you're upset, but you have to get a hold of yourself."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진정해야지.)
▶ My mind went blank: 잠시 멍했다.
"I couldn't remember my speech because my mind went blank."
(잠시 멍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
▶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난 거 아니야.
"Don't worry.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난 거 아니야.)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잡다한 일에 두루 쓰는 도장 (3)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아니함 (5)꽃의 모양을 놓아 짠 돗자리 (6)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곁이 서로 통한 것. 화목한 부부나 남녀의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인기척을 내기 위하여 일부러 하는 기침 (10)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심하다 (12)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을 파손하다 (13)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15)낙지의 배 속에 든 검은 물. 묵즙 (16)내각을 개편함 (19)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21)토지와 마을을 지켜 준다는 신을 모신 집 (23)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곳.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이 뜨거워져 ~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였다 (25)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등의 돈 (26)머리털을 양쪽으로 갈라붙일 때 생기는 금

세로 열쇠

(1)쌀로 빚어서 만든 희부연 색깔의 우리나라 고유의 술. 탁주. 남들은 ~를 술이라지만 내게는 밥이나 마찬가지로 ~를 마시면 배가 불러지니 말이다(천상병) (2)목이 길게 올라오는 신 (3)동식물의 시체나 그 흔적이 암석 속에 남아 있는 것 (4)액체를 뿜어내는 기구 (6)연애의 경쟁자.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 (7)매우 혼란 (8)애쓴 일이 아무런 보람 없이 헛일로 돌아가는 것. ~을 켜다 (9)굵은 침이 꽂혀 있는 꽃꽂이 도구 (11)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 (12)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4)아무 것도 입지 않은 몸. 누드 (15)호박, 박, 가지, 고구마 따위를 잘고 길게 썰어 말린 것 (17)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18)풍수 지리에서, 아주 좋은 뒷자리나 집터 (20)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둔 돈 (22)혼인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타고 가는 말 (23)꿀을 얻기 위하여 벌을 기르 (24)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스도쿠

3				4				
	5		7			9	6	1
	2				8		5	
6								4
				6				
9								7
	6		9				8	
4	3	1			5		9	
					2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4	1	2	3	8	6	5
2	6	7	5	8	9	1	4
5	8	3	4	1	6	7	2
7	3	9	1	5	8	2	6
6	2	8	3	9	4	5	7
4	1	5	6	7	2	3	8
3	5	4	8	6	1	9	7
1	9	6	2	3	7	4	5
8	7	2	9	4	5	6	1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구인

매매

개인/비즈니스/용자전문

구인

일본식당 직원모집
 사세확장으로 함께 성장하실 분
 *스시 셰프 0명
 *히바치 셰프 0명
 *웨이터/웨이트리스 0명
 침식제공
 엘라베마 지역
 (251)968-2525 (256)653-1970

뷰티 서플라이 매매
 플로리다 올랜드
 매상 \$1,000,000/년
 렌트 \$5,000
 매매가 \$500,000
 T.407-928-3057

25년 경험 중부컨설팅
213.514.1244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 환영
 -크레딧카드 한도 확장 분
 연체 전 연락요망
 -크레딧 안좋은신분 교정/빌드업
 -신용카드 한도만큼 증액해 현금 마련
 -역이민 계획중이신분
 -가계 폐업 고민 중 이신분

하숙·렌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방고환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애틀랜타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천주산삼** **chunjongsansam.com**
심마니 장석훈의 천주산삼
213.388.1234 |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뉴스 통합 모바일 App
(213)368-2532

위산역류 통증·뱃살 **불면증** 어지럼·두통
항문폴립 요실금·전립선 **이명·치질** 냉증·변비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상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엘에이) 213-675-6877 (플러턴)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유단 도인력사단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 신제품
BIG SALE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부)
 www.book7080.com
 인터넷에서 (700인) 전립선 암 예방 및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www.J2V.co.kr
 J2V.co.kr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2054 S. Euclid St #H. Anaheim, CA 92802

2023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개강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